

◀기쁜 우리 날들▶ 가장 아름다운 가위, 바위, 보



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.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.

"아빠랑 가위바위보를 할까?
네가 이기면 부탁하는 것은 뭐든지 다 들어줄 테니까."

"그럼 아빠, 내가 갖고 싶은 것 다 사 줄 거야?"
"물론이지. 내가 갖고 싶은 것은 아빠가 모두 다 살 줄 게."

아버지와 아들은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했습니다.
그런데 가위바위보를 할 때마다 아들은 단 한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.
그것이 아들은 그렇게 신이 날 수가 없었고
그것은 아들의 즐거움이자 낙이기도 했습니다.

아들은 가지고 싶은 장난감, 먹고 싶은 모든 것을 다 사달라고 했고
아버지는 즐거이 아들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.

아버지는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겨 기뻐하는 아들을 보면서
자신도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.

아버지가 가위바위보를 할 때마다
아들에게 일부러 저준 것을 아들은 아직 어려서 알지를 못합니다.

오직 주먹밖에 낼 줄 모르는 아들,
아버지의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손가락이 없는 조막손으로 태어나
오직 주먹밖에 낼 수가 없습니다.

언제까지고 아버지는 이런 아들에게 계속 지고 싶어합니다.
언제까지나, 언제까지나...

자기가 주먹밖에 낼 줄 모른다는 것을 아들이 스스로 알아차릴 때까지
아버지는 또 계속 저 줄 것입니다.

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이 자신이 주먹밖에 낼 줄 모르는 것을
알게 될 날이 오지 않기를 또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.

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	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손을 모으면 하나님은 복 주시기 위해 손을 펴십니다 갈보리교회 (마7:8) Calvary Presbyterian Church	교회생활지침 누가 10:37 *자원함 -성경과 봉사 *의명성 -명예
제8권 29호	기초성경공부이수. 정장으로 예배. 남 이야기 금지	2006년 7월 23일
☎ 369- 5077. Khyber Pass Rd.(The Church of Holy Sepulchre). www.calvary.org.nz		

◀하나님! 나의 하나님▶ 기도일기



주님, 제게 꾀가 아니라
지혜를 간직하게 하여 주십시오.
나약이 아니라
온유를 간직하게 하여 주십시오.
살면서 느끼는 크고 작은 아픔들이
분노나 서글픔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
투명한 슬픔으로 다가와
진실을 배울 수 있는 기회로
삼게 하여 주십시오.

<http://kr.blog.yahoo.com/jhemhsa>

너무 똑똑해서
남을 피곤하게 하기보다는
부족한 듯해도 푸근함을 지닌 사람이고 싶습니다.

재주는 피우진 못하더라도
마음 하나 만큼은 늘 한결같이 하여 주십시오.
눈치로 남을 대하기보다는
사심 없는 친절로 나누는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.

웬지 자꾸 남이 미워지려 할 때
그 사람도 역시
나와 같은 그리움을 지닌 가난한 사람임을.

그리하여 나의 그리움이
당신을 찾아 밤낮을 뒤척이다,
한적한 곳에서 우연히 마주치거들랑
미운던 사람, 고뽀던 사람, 그림던 사람

그들 모두 결국은 반갑고 꼭 필요한
이웃이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.

◀고향의 이름 ▶ 망치마을공동목욕탕

경남 거제시 일운면 망치리,
명절을 앞두고 발디딜틈 없이 초만원이던 목욕
탕을 다녀오는 것도 명절풍속의 하나였습니다.
여탕 입구에는 빨래를 금지한다는 경고문이 있
었지만 잘 지켜지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. 서로
모르는 사이지만 등을 밀어주던 짝을 찾기에 그
다지 불편함 없었던 시절의 "목욕탕", 이젠
사우나라는 말에 묻혀 그리운 단어가 되었습니다

◀말씀따라 행하기▶

어떤 바보라도
사과속의 씨는
헤아려볼수 있다.
그러나 씨속의 사과는
하나님만 아신다.

◀인품따라 행하기▶

물건의 가치는 표시되어 있는
가격과 반드시
일치하는 것이 아니다.
물건의 가치는
나의 필요에 달린 것이다

KBS2

망치공동목욕탕

주 일 예 배

(*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으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)

영 광 송 참회와 소원을 위한 기도 Confession Pray	Calvary	다 같 이
용서의 선언 Proclaim	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	인 도 자
*찬 송 Hymn	50장	다 같 이
*성 시 교 독 Response Reading	24(시100편)	
*신 앙 고 백 Apostle's Creed	사 도 신 경	
교 회 소 식 Welcome & Announcements		인 도 자
찬 송 Hymn	455장	다 같 이
기 도 Pray		최재학 장로
성 경 봉 독 Scripture Reading	요한복음 20:24-29	인 도 자
성 가 대 찬 양 Choir		나무십자가 성가대
설 교 Sermon	12제자 연구(7) "의문이 많은 사람 도마"	김성국 목사
찬 송 Hymn	474장	다 같 이
헌 금 기 도 Offering Pray		인 도 자
응 답 송 Response Song	'이 믿음 더욱 굳세라'	다 같 이
축 도 Benediction		김성국 목사

◆7월 예배위원◆

일자	기 도	헌금위원	차 량	안 내
2	장현중	예배부장	최재학	본당: 노은숙 이금선
9	정덕수		장현중	
16	정희자		권용일	
23	최재학		고성일	현관: 정덕수
30	현석호		백제성	최재학

◆7월의 교회력◆

주 일	예배와 모임
2 성찬주일	월초새벽기도회(1) 피택자교육(7)
9	믿음의어머니기도회(11) 구역예배(14)
16 창립기념주일	임직식, 식사교제
30 이삭줍기주일	

『교 회 생 활』 2006년 신앙생활: 하루에 7분기도하기 매일 가족위해 5분 매일 교회위해 1분 매일 남을위해 1분	『교 회 등 록』 *3주간 예배,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십시오. *여러 교회를 다녀 보십시오. 그래야 신중하고 바른 판단이 됩니다
주일예배. 아동, 학생: 12:30분	수요예배: 7:30 pm
새벽기도회: 금 5:55	청년부: 토 오후 5시

1. 교우소식
 - <축하> 박형길 (박병민, 이기중 집사 아들) NZ Secondary Student Choir 합창단.
홍콩에서 열린 International Youth Choir Festival에서 1등 수상
중국에서 열린 World Choir Olympic에서 금상, 1등 수상
 - <봉헌> 김진근 집사. "대형 스피커, 앰프"
 - <등록> 김종해, 이영자 집사(3선교. 1구역). 매기(청년부)
☎294-6680 64 Appleby Rd. Drury
2. 장신동문교회&남태평양노회 연합부흥회(예고)
 - <강사> 최삼경 목사(빛과소금교회) <장소> 갈보리교회당
 - <부흥회> 8월9일(수)-10일(목) 저녁 7:30분
 - <목회자세미나> 8일(화) 저녁7:30 (주님의교회)
 - *연합성가대로 운영합니다(지휘: 신경화 집사)
3. 성전건축헌금을 위한 봉사
 - (1) 성전건축기금을 위한 사진촬영봉사: 김 웅 청년
*여권, 가족사진등 촬영. 기본재료비를 제외한 전액 건축헌금봉헌. 교회내에서 촬영가능(문의: 김 웅, 이태한 목사)
 - (2) 양말판매; 송의수, 이성희 집사. Hall에서 Tea Time을 하면서...이억금을 성전건축헌금으로 봉헌.
4. 성전건축을 위한 기도단 기도회: 매월 마지막 수요일 수요예배 후 유아실
5. 수요예배 <수요일 저녁 7:30분> 찬양과 말씀의 1시간을 누리십시오.

◀착한 시인▶ 감기 앓고서 김성국

어릴 적 몸살은
계란푼 장국 훌훌 마시고
참기를 몇 방울 떨어뜨린 간장을
흰 미음에 섞어 먹고 나서는
한 이틀 학교 결석했다
참 좋았지.

아내가 고춧가루 섞어
끓여준 계란장국에
목도리 둘둘 감고 자고는
새벽에
천근만근 몸 일으켜 나간다.

네 몸뚱이
별거 아닌 줄 알아라
네 말꼬리
이렇게 탁한 줄 알아라
너 없다고
어떻게 되는 것 아니라는
조물주의 경고를 후질근하게
앞으면서 깨닫는다.

땀에 젖은 속옷 벗을 때면 앓
던 감기 끝내듯 시원했습니다
온 집안 식구 읊을까 아이도
아내도 접근금지, 축수금지
시켜놓고는 어둔 방에 홀로
누워 밤과 싸웁니다. 수건 적
셔 바뀐가며 머리에 얹어주시
던 어머니가 보고 싶었습니다
이제는 무슨 일을 맞다 뜨리
면 어머니와 아버지가 떠 올
려져 자꾸 눈물만 나오려 합
니다.

어머니 감기하실 때 당신이
지으신 새벽밥 잘도 먹고 학
교 갔던 내가 부끄럽습니다.
아니, 죽도록 밉습니다.